

김우진 희곡 <정오>에 나타난 탈식민적 양상 고찰

이승현*

<차례>

1. 들어가며
2. 근대적 시공간, 공일(空日)과 공원(公園)
3. 공일(空日)과 공원(公園)의 오용(誤用) 양상
4. 희곡을 이용한 근대에 관한 탈식민적 접근
5. 나오며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희곡 <정오>를 통해 김우진의 탈식민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희곡 <정오>는 작품의 배경으로 공일(空日)과 공원(公園)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단순하지 않다. 근대적 시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수용된 공일(空日)과 근대적 공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수용된 공원(公園)은, 근대의 산물로서 조선에 도입된 것이다. 김우진은 바로 이와 같이 근대적 산물로 도입된 공일(空日)과 공원(公園)이 오용(誤用)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우진은 하오리와 굴네수염을 통해 구시대적 인습의 부정성과 순사를 통해 근대적 제도의 부정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우진은 이러한 그의 인식을 단순히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희극(喜劇)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오리와 굴네수염 그리고 순사의 속성을 비웃음으로써 그의 탈식민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근대가 마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당시, 근대의 제도가 가진 부정성과 근대 수용에 있어 나타나는 구시대적 인습의 부정성을 드러냄으로써 근대 수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였다. <정오>가 짧은 습작 정도의 작품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그 속에서 그의 이러한 남다른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김우진, <정오>, 근대, 탈식민, 희극

1. 들어가며

우리 희곡사에서 수산(水山) 김우진은 큰 주목을 받는 인물 중 하나이다. “20년대 최고의 연극인인 동시에 선구적 지식인이었다”¹⁾는 소개나, “20년대 근대극의 발전에 이바지한 선구적인 연극인”²⁾이라는 설명, 혹은 “1920년대 초중반의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희곡사적인 측면에서 자못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³⁾라는 지적은 그가 연구자들로부터 받는 관심의 면면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평론이나 시와 같은 다른 글들을 제외한다면, 김우진은 5편의 희곡을 1925년에서 1926년에 이르는 단 일 여년의 기간 동안 썼다. 물론 연극에 대한 다른 많은 평론들도 연구자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5편의 희곡에 나타나는 당대 다른 작가들과의 차별성이 보여주는 매력은 쉽게 간과하기 힘들다.

김우진에 대한 논의는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이두현⁴⁾의 연구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김우진에 대한 연구는 그의 문학 활동이 보여주는 실험적이고 선구적인 면들을 강조한 유민영,⁵⁾ 서연호⁶⁾ 등의 초기 희곡 연구자들에게로 이어졌다. 이러한 앞선 연구들에 힘입어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이고 세밀한 작업들이 이어지는데, 개별 작품에 대한 논의⁷⁾나 기호학적인 접근⁸⁾ 혹은 표현주의⁹⁾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 1) 유민영, 「서구에의 탐닉과 자기파멸」, 한국극예술학회편, 『한국현대극작가론① 김우진』, 태학사, 1996, 23면.
- 2) 민병욱, 「삼화극적 구조와 현실주의적 인식」, 위의 책, 187면.
- 3) 홍창수, 「김우진의 표현주의와 <난파> 연구」, 위의 책, 263면.
- 4) 이두현, 『한국신극사연사』, 학연사, 1990(초판 1966), 108~115면.
- 5) 유민영, 「서구에의 탐닉과 자기파멸」, 한국극예술학회편, 『한국현대극작가론① 김우진』, 태학사, 1996; 유민영, 선각자 김우진의 연극 실험, 같은 책.
- 6) 서연호, 김우진의 생애와 문학세계, 위의 책, 1996; 서연호, 김우진의 문예비평론, 위의 책.
- 7) 김종철, <산폐지> 연구, 위의 책, 1996; 이은자, <이영녀> 연구, 위의 책; 이상호, 「김우진의 <단폐지>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8집, 2003, 69-101면.
- 8) 김성희, 김우진·유치진 희곡의 기호학적 연구- 난파, 「산폐지」, 토막, 「소 를 중

*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함께 전반적이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김우진과 그의 문학을 다룬 연구 서적들도 출판되었다.¹⁰⁾

김우진의 연구사를 검토할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작품들에 드러나는 표현주의라는 양식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우진이 보여주는 표현주의에 대한 관심과 그 선구자적 경향을 볼 때, 이러한 연구자들의 관심 또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김우진이 자연주의극인 <두테기 시인의 환멸>과 <이영녀>도 함께 창작했다는 점이며, 그의 마지막 작품인 <산돼지>는 전체 3막 중 표현주의가 2막에만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이 김우진의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주의적 특성과 그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평가절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우진은 철저하게 이론적인 검토와 창작적 실천을 병행하려”¹¹⁾했다는 논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김우진에 대해 가져야 하는 관심이 보다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성취를 바탕으로 두면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된 김우진에 대한 양식적인 접근에서 한발 물러나 김우진의 작품을 통해 그의 의식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창작연

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1; 김성희, <난파>의 등장인물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한국현대극작가론① 김우진』, 태학사, 1996.
 9) 이미원, 김우진 희곡과 표현주의, 『한국현대극작가론① 김우진』, 태학사, 1996; 홍창수, 김우진의 표현주의와 <난파> 연구, 같은 책; 정갑준, <파사>, <난파>, <산돼지> 속에 나타난 표현주의 기법연구, 『시학과 언어학』 187호, 시학과언어학회, 2009, 139-165면; 주현식, 폭발의 드라마, 폭발하는 무대, 『한국극예술연구』 29집, 2009, 11-46면; 양근애, 『김우진의 <난파>에 나타난 예술 활용과 그 의미, 『국제어문』 43집, 2008, 329-358면; 김재석, 『김우진의 표현주의극 창작 동인과 그 의미, 『어문론총』 49호, 2008, 317-345면.
 10) 이와 관련된 연구 서적은 다음과 같다.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서연호, 『김우진』,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이은경, 『수산 김우진 연구』, 월인, 2004; 윤진현, 『조선 시민극의 구상과 탈계몽의 미학』, 창비, 2010.
 11) 김재석, 『김우진의 표현주의극 창작 동인과 그 의미』, 『어문론총』 49호, 2008, 340면.

대가 불분명하고 습작 정도로만 인식되는 <정오>를 그 대상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기실 <이영녀>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의 경우는, 일정 부분 작가의 체험적 세계와의 연관성 하에서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다시 말해, 이는 작가 김우진을 작품 속 인물에 투영시켜 충분히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영녀>나 <정오>의 경우는 이와 달리 작가가 목격하고 있는 세계가 그려지고 있다. 작가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내면세계와는 거리가 있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정오>는 주로 김우진을 연구하는 과정 중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되었다.¹²⁾ 서연호는 <정오>가 “일련의 잡다한 사건과 특이한 분위기를 소묘형식으로 엮은 이 작품은 플롯보다는 상황이 더 중시된 희곡으로”¹³⁾ “기존세대나 사회현실의 우스꽝스러운 모순을 비판하는”¹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오>에 대해 양승국은 현실에 대한 불만을 “‘철 모르는’ 학생들의 빈정거림을 통하여 표출해 내고 있는 점은 은연중 작가가 자신의 현실 인식을 드러내 주고 있는 점이어서 흥미를 끈다”¹⁵⁾고 평가한다. 홍창수는 “이 작품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고리대급업자인 일인과 그에게 기생하는 친일조선일에 대한 비판 및 그 비판을 통해 정당한 노동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이 갖는 건강성을

12) <정오>만을 다룬 논문으로는 윤진현의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작품에 대한 해석적 논문이 아니라 정확한 창작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작품 <정오>의 창작 연대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글이다. 이 글에서 윤진현은, 기존 연구들이 <정오>의 창작 연대에 대해 ①학생시기, ②1925년 이전 ③1925~1926년 사이 다른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 등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어 김우진의 표기 방식과 ‘공완’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그 시대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1925년 7~8월경 가장 초기작으로 <정오>가 창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윤진현, 김우진 희곡 <정오>의 창작 연대, 『한국극예술연구』 18집, 2003).
 13) 서연호, 『김우진』,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79면.
 14) 서연호, 위의 책, 82면.
 15)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150면.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다”¹⁶⁾고 밝히고 있다. 이은경은 “흡연문제로 인한 신구세대의 갈등과 학생·모군군으로 대표되는 민족세력과 구레·하오리로 대변되는 일제세력과의 대립이 중심 사건이 된다”¹⁷⁾고 보고 있다. 김미라는 <정오>가 제목을 통해 주제를 상징하면서, “공간적 배경은 어느 대도시의 공원으로 사회의 일상성과는 동떨어진 휴식과 나태의 공간”¹⁸⁾이며 “이러한 공간 설정은 지배계층인 나태한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 첨예화된 갈등이 아니라 공원이란 무대공간처럼 한가하고 느슨한 갈등임을 암시”¹⁹⁾한다고 논의한다.

기존 논의들을 보면, 대체로 상황이 중심을 이루는 <정오>는, 구세대와 신세대 또는 일제와 민족 세력 간의 갈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나 ‘빈정거림’으로 현실을 그리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얻어낸 경향이 크다. 오히려 작품을 통해 작가의 현실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의 상관관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우진이 <정오>에서 택한 ‘희극’은 “순수한 지성에 호소하”²⁰⁾기 때문에, 대상의 특징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곧, 그 웃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들의 어떠한 점이 웃음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오>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상황이 중요하다. 상황은 인물들이 처해있는 시공간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시공간 배경에 대한 분석은 <정오>에 대한 새로운 작품 해석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배경의 중요성에 관심을 보이고도 공

16) 홍창수, 김우진 연구-隨想을 포함한 문학평론과 희곡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1, 60면.

17) 이은경, 『수산 김우진 연구』, 월인, 2004, 99면.

18) 김미라, 김우진 희곡연구-자연주의극에서 표현주의극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91, 52면.

19) 김미라, 위의 논문, 52-53면.

20) 앙리 베르그송, 김진성 옮김, 『웃음』, 종로서적, 1983, 6면.

원을 ‘일상성과는 동떨어진 휴식과 나태의 공간’으로 이해한 김미라의 논의는 조금 아쉽다. 노동이 일상이라면 휴식도 당연히 우리의 일상이다. 단지 그것이 ‘공원(公園)’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낯설어 보일뿐이다. 공원(公園)이 휴식의 공간이면서도 이처럼 특별한 휴식을 상상하게 만드는 이유는, 차츰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대’라는 이름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후 논의하겠지만, 이는 ‘정오’나 ‘공일(空日)’ 같은 시간적 배경을 이해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오>는 갈등하는 대상을 ‘희극’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려낸다. 그리고 이는 두드러진 상황 속에서 웃음을 사는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 상황은 대상이 놓인 시공간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작품에서 그려지는 이 시공간은 우리에게 ‘근대’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것들이다. 결국, <정오>는 ‘근대’라는 문명이 도입된 당시 조선과 그 속의 인물들을 김우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작품이다. 덧붙여, ‘희극’이라는 방식을 통해 웃음의 대상과 그 웃음의 출발이 된 상황을 분석한다면, 그것들의 부정적인 실체를 인식하고 있었던 김우진의 탈식민적 의식의 단면도 함께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근대적 시공간, 공일(空日)과 공원(公園)

“근대는 새로운 시간과 함께 온다”²¹⁾는 한 논자의 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보다 명확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알

21) 박태호, 『독립신문』에서 근대적 시간-기계의 작동양상, 『근대개봉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257면.

고 있는 태양력과 요일을 중심으로 한 ‘시간’ 개념이 근대에 서구를 통해 들어온 것이라는 점이다. 태양력은 일본의 간섭 속에 진행된 갑오개혁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공일은 그 보다 반년 전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²²⁾

2. 좌기한 날은 휴가로 함. 개국기원절 7月 16日, 대군주탄진 7月 25日, 서고일 12月 2日, 제석 전일부터 정월 3日까지.
4. 일요일은 전일휴가로 하고 토요일은 정오 12시로부터 휴가로 함.
6. 사무가 번잡한 경우에는 상관의 지휘를 받아 휴가일 혹은 야간을 불구하고 직무를 집행하여야 함.²³⁾

위의 예를 통해, 당시 관청의 집무시간을 공포하면서 주7일을 중심으로 한 태양력과 함께,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 즉 공일(空日)의 개념이 도입되고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은 날짜표와 시간표에 따라 기차와 전차를 이용하고, 관청에서 공일(空日)에는 사무를 볼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²⁴⁾ 곧, 이러한 변화는 당시 조선에 근대적인 시간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조선인들 또한 점점 그러한 근대적인 시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근대적인 시간의 정착에 따라 조선인들의 생활 여건 또한 그에 맞게 변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구로부터 유입되어 정착된 근대적인 시간 개념이 <정오>의 시간적인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처음 <정오>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설정은 단순히 “바람 한 점 엷는

22) 조현범, 한말 태양력과 요일주기의 도입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17집, 한국종교학회, 1999, 247-248면.

23) 『閣令 第8號 各官廳의 執務時間을 發布하였는데』, 『고종시대사』 3집, 1895.5.10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db.history.go.kr/url.jsp?ID=gj_003_1895_05y_10_0050 accessed 2010.11.06)

24) 조현범, 같은 글, 250면.

뜨거운 여름날의 오전²⁵⁾으로 되어있으나 작품의 시간은 점점 흘러 제목과 같이 ‘정오’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작중 인물들이 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 하루가, 공일(空日)이라는 점이다. 위의 인용에서도 보았듯이, 공일(空日)은 특정한 휴가일과 일요일 등을 합쳐, 법적으로 관청이 쉬도록 규정된 날이며, 이에 따라 조선 사회의 생활 방식 및 여건도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근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볼 때, 공식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로 공일(空日)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차후 설명하겠지만, 작품 <정오>에서는 이러한 근대적 시간 개념인 공일(空日)이 모든 인물에게 균등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공원(公園)’ 또한 ‘공일(空日)’과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문물로서 서구에서 유입된 것이다. 1880년대 중반 해외에 파견된 사절의 보고서와 개인의 일기 및 견문록 등에 ‘공원(公園)’, ‘Public Park’ 혹은 ‘Public Garden’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당시 이들 용어가 정착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²⁶⁾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이러한 공원(公園)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뉴욕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에 대해서는 “귀중한 토지에 처음부터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써 조성된 공원이라고, 공원시설로는 분수·원정·편의시설 등이 언급되고 있으며, 시설의 상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기술하면서, 공원은 도시민에게 행락과 휴게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²⁷⁾ 또한 공원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관점에서 공원이 행락의 장소 이상으로 위생상에도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다.²⁸⁾ 결국, 개국 후 정부는 많은 사절

25) 서연호·홍창수 편, <정오>, 『김우진 전집 I』, 연극과인간, 2000, 176면. (이후 김우진의 모든 글은 전집을 인용하며, 해당 권수와 면수만 밝히기로 함.)

26) 강신용·장윤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왕사, 2004, 29면.

27) 강신용·장윤환, 위의 책, 24면.

28) 강신용·장윤환, 위의 책, 24면.

및 유학생을 외국에 파견하였는데, 그들은 공원을 ‘행락과 휴게의 장소’ 이상으로 ‘근대산업도시의 도시문명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이러한 공원(公園)에 대한 인식이 조선에서 실제적인 결과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에 파고다 공원을 통해서이다. 파고다 공원은 서울에 세워진 최초의 공원으로, 원래 조선전기 원각사가 있던 자리였으나 이후 빈터로 남아있었는데, 이를 1897년 영국인 고문 브라운이 설계하여 공원으로 꾸몄다.³⁰⁾ 이후, 남산공원과 장충당 공원 등이 개원하였는데, 남산공원은 임진왜란 때 왜병의 주둔지였던 것을 일본인들이 기념하여 1897년에 세운 왜성대공원으로 출발하여 1910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원하였다.³¹⁾ 그리고, 장충당 공원은 1900년 고종에 의해 을미사변 때 순직한 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초혼단으로 건립되었다가 1920년대 일제에 의해 그 모습이 바뀌게 된다.³²⁾

김우진의 <정오>에는 이처럼 근대적인 문명의 한 요소로 유입된 공원(公園)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

엇던 대도회에 잇는 공원 안. 중앙에 뗏시 도은 모정(茅亭). 그밧, 십자 형으로 책(柵)이 잇고 그 각책 양편을 껴서 벤취가 북허 잇다. 주위에 녹음. 그 새이를 터서 총로(叢路)가 좌우로 내려가 잇다.³³⁾

위는 <정오>에 등장하는 무대 지시문이다. 중앙에 위치한 정자를 중심으로 울타리가 쳐져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벤치가 놓여있으며, 숲 사이로 길도 나있다. 이는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도시 내 공원파도 유사하다.

29) 강신용·장운환, 앞의 책, 41면.

30)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4』, 민속원, 2009, 389면.

31) 부산박물관, 위의 책, 421면.

32) 부산박물관, 위의 책, 435면.

33) 김우진, <정오>, 앞의 책, 176면.

초기 서구에서 발견된 ‘행락과 휴게의 장소’ 및 ‘도시문명시설’로서의 공원(公園)은, 근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유입되면서 그와 닮은꼴로 조선 사회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즉, 공원(公園)은 도시화를 통해 자연과 멀어지게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근대적 공간이었으며, 근대화를 통해 빠르게 변화해가던 조선에서도 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논의에서 등장하겠지만, 김우진은 그렇게 조선의 일상에 도입된 공원(公園)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던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일(空地)과 공원(公園)은 서구를 통해 받아들인 하나의 근대적 문화이며, 그 문화는 또한 그것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체계 및 생활환경을 변화시켰다. 태양력과 요일 사용과 함께 도입된 공일(空地)은 조선 사회의 시간 개념과 생활 패턴을 바꾸었으며,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공원(公園)은 조선 사람들의 공간 개념과 그 활용의 방식을 바꾸어놓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김우진은 이렇게 근대화와 함께 도입된 공일(空地)과 공원(公園)이 그 원래적인 성격에 맞게 모든 인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3. 공일(空地)과 공원(公園)의 오용(誤用) 양상

거기에는 봉건 생활, 가족주의 생활에서 지리멸렬하게 된 생활을 무의식적으로 격거 오다가 청천벽력으로 세계의 변화하는 조류의 파급에 눈 뜨자, 자기 주위에는 역시 예전 봉건제도와 가족주의 생활의 공기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며 잇는 동시에, 근대적 독연기(毒煙氣)가 다시 밀쳐 오는 중에 잇는 것을 발견했다.³⁴⁾

34) 김우진, 아관 ‘계급문학’과 비평가, 『김우진 전집Ⅱ』, 281면.

김우진은 계급문학에 대해 논의하는 글에서 위와 같이 당시의 생활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김우진에게는 단순히 서구로부터 들어온 소위 근대적인 문명들이 가진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구시대적 인습의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의식은 작품 <정오>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작품 <정오>에서는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다.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여 각각 대립하는 정도로 극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의 기반이 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바, 그것은 바로 근대적인 시공간인 공일(空日)과 공원(公園)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인물들 간의 대립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굴네수염과 하오리, 그리고 학생一과 학생二로 구분되는 서로 간의 대립 관계이다.

굴네 (학생의게) 그도 그래. 이 양반 말이 올치. 그저 학교 다니는 공부에만 열심해야지. 담배 막으면 술 먹지 술 먹으면 기생방에 가지. 로형들이 그러던 말이 아니라 요새 학생들은 풍기(風紀)가 그러타고 합디다.

학생二 별 선생님을 다 맛냈군. 여기는 공원이랍니다. 담배 피우고 쉬란 대야요. 교장이 아냐요.³⁵⁾ (179면)

굴네수염은 하오리가 받을 집세를 떼어먹고 평양까지 가서 놀다온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하오리의 말에 동조하고 나선다. 그는 “연장자”³⁶⁾임을 강조하며 하오리의 편에서 학생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그들이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있는 것이며, 공원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라는

35) 김우진, <정오>, 『김우진 전집 I』, 179면.

36) 김우진, <정오>, 위의 책, 179면.

점을 들어 반박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논리에 할 말을 잃었던 굴네수염과 하오리는 이후 다시 그들이 공부하지 않고 나와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하오리 (우스며) 당신 공부 안 하고 이렇 곳에 와서 노랏소 선생님한테 안 마졌소?

학생二 오늘은 공일야, 공일. (신문을 내드리며) 아라 잇소? (182면)

하오리와 굴네수염은 공원(公園)이라는 휴식을 위한 장소를 벗어나, 공부할 시간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다시 학생들에게 비판을 가하지만, 학생들은 공일(空日)이라는 점을 내세워 다시 한 번 그들이 취하고 있는 휴식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오리와 굴네수염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것은 어울리지 않으며, 공부를 해야한다는 관점을 내세워 학생들이 취하는 휴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공일(空日)과 공원(公園)을 통해 보면, 학생들에게도 휴식은 보장되어 있다. 공일은 공식적으로 수업이 없는 날이며, 공원은 그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하오리와 굴네수염, 학생들간의 갈등은 근대의 산물인 공일과 공원의 이용에 관한 세대 간의 갈등과 맞닿아 있다. 이미 공일과 공원에 대한 개념이 정착된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학생들이 공일에 공원에 나와 휴식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구세대인 하오리와 굴네수염은 그들이 ‘연장자’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학생들이 해야 한다고 믿는 행동에 관해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

공일이나 공원이라는 근대의 산물을 자신들은 누리면서도,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학생들의 본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김우진이 말한 ‘봉건제도와 가족주의 생활의 공기’와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연장자’로서 학생들에

게 자신들의 생각을 강요하는 하오리와 굴네수염은, 근대적 시공간인 공 일과 공원을 오용하고 있는 셈이다. 근대적인 문명을 올바르게 수용하지 못하고 전래된 인습의 관점을 통해 그것의 이용에 관한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굴네수염과 하오리, 그리고 학생—과 학생—의 세대 간 대립을 통해 나타나는 근대적 시공간의 오용은 근대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나타나는 구시대적 인습의 부정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김우진은 <정오>에서 근대적 제도의 부정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근대적 시공간의 오용도 함께 그려내고 있다.

순사 너 왜 애 보로 왔으면 애나 보지, 이런 데 안져서 쫓고 있서!³⁷⁾
 순사 (눈 비비고 이러나는 모군군(軍)에게 와서) 너는 외 또 일 안 하고
 여기 안졌나? 낮잠만 자고 너 날마дук 그리다가는 방랑자 취체(取
 締)당한다. (181면)

아이를 보러 공원에 나온 고모리는 졸고 있다가 애를 찾아 데리고 온 순사에 의해 혼계를 듣는다. 순사는 “어린애 이러빠리면 엇더케 할려고 그러”³⁸⁾나는 식의 논리를 통해 고모리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일견 순사의 논리는 고모리의 부주의를 언급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실 고모리는 아이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히로짱’과 놀겠다고 하는 바람에 벤치에 앉았다가 잠이 든 상황이다. 이렇게 의도적인 잘못이 없었던 고모리에게 순사는 거침없이 혼계를 쏟아내고 있다. 근대 사회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길 잃은 아이를 찾아 돌보는

것도 순사의 임무 중 하나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사는 고모리를 하대하며 그녀를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모리에 대한 순사의 추궁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어지는 모군군에 대한 순사의 훈계와 연장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순사는 수레를 끄는 모군군이 더위에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대 와서 밥바져서 놀기만 하고”³⁹⁾ 있다며 그를 지적하며 훈계하고 있다. 순사의 입장에서는 모군군이 “나가서 구루마라도 끌었으면 몇 십전이라도 벌”⁴⁰⁾텐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판판히 놀고만 있다고 믿고,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사가 고모리와 모군군을 상대로 이러한 지적과 훈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이다. 그렇다면 순사의 그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근대적인 지배 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하겠다. 즉, 근대적인 지배 제도로부터 나오는 지배 권력이 순사에게 이양됨으로써 순사는 고모리와 모군군을 지적하고 훈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사의 권력이 작용했던 지점이 문제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윤진현은 근대의 공안(police)의 역할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봉건적 질서에서 방출된 농민들이 부랑자로 떠돌게 되자 이들을 노동층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공안 즉, 순사이며, 신파극에서는 갈등을 해소하는 인물로 순사가 등장하지만 김우진의 <정오>에서는 통제를 수행하는 주체로 폭로되고 있다는 것이다.⁴¹⁾ 윤진현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순사는 근대의 또 다른 산물인 지배 권력을 통해 탄생한 통제의 주체이다. 그리고 그 통제의 주체인 순사가 <정오>에서 고모리와 모군군에게 지적과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순사의 통제력이 이제 개인의

37) 김우진, <정오>, 앞의 책, 180면.

38) 김우진, <정오>, 위의 책, 181면.

39) 김우진, <정오>, 앞의 책, 181면.

40) 김우진, <정오>, 위의 책, 181면.

41) 윤진현, 앞의 책, 227면.

일상 영역 중에도 휴식의 차원에까지 도달했다는 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정오>의 배경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일(空日)의 공원(公園)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고모리와 모군군은 근대의 통제 주체인 순사에 의해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의 문제는 앞선 굴네수염과 하오리, 그리고 학생一과 학생二의 세대 간 대립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국면을 보여준다. 앞서의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나는 구시대적 인습의 부정성에 의한 근대적 시공간의 오용이라면, 순사를 통해 개인의 휴식이 통제받는 상황은 근대적 제도와 관련된 부정성에 의해 근대적인 시공간이 오용되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우진은 <정오>를 통해 근대의 산물로 등장한 공일(空日)과 공원(公園)이라는 시공간이, 그가 고민하던 ‘봉건적 독연기’와 ‘근대적 독연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4. 희극을 이용한 근대에 관한 탈식민적 접근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오>라는 짧은 작품 안에는 공일(空日)과 공원(公園)이라는 근대적 시공간이, 구시대적 인습의 부정성과 근대적 제도의 부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오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이 작품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굴네 저런 하등노동자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못된 생각이나 하자면 끼긔해야 돈 있는 이 욱이지요.

하오리 굶는 것 그것 도로 좇소. 놓고 먹는 것 큰 죄요.

굴네 무식한 자식이 그리고나서는 사회주의니 무슨 주의니 하고 떠

들고만 다니는구려.

하오리 그것 배꼽흔 사람의게 단꿀 향가지말이요. 게우르고 노는 사람의게 사탕 향가지요. 요새 젊은 사람 아주 납분 사람 만이 잇소. 일본 사람도 잇고 조선 사람도 잇고 (두학생을 힐긔 엿눈질 하고) 노동자는 공장에다가 말 향가지로 꼭 매여논 것이 좇소. 일 아니헛스면 막 때려주엇소. (182면)

위의 인용은 순사가 모군군을 질타하고 난 후, 굴네수염과 하오리가 보이는 반응이다. 그들에게는 하등노동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적으로 공장에서 일만 하도록 매여놓고 때려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에게는 왜 노동자들이 굶주려야 하는지 혹은 왜 일하지 못하고 놀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식한 자식’들이 외치는 ‘사회주의니 무슨 주의니’하는 것들은 불만의 표현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학생一은 “아야, 아야, 아야”하며 웃음을 터트리고 만다. 하오리와 굴네수염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묘사는 다른 곳에서도 등장한다.

하오리 이런 사람이 날마득 날마득 공일이요. 언제든지 돈 업소 업소 하능 거시 참말이요.

모군 (드러누라다가 이리나며) 날보고 하는 소리 아니요, 흥. 무슨 소리 했나. 넝가미상은 왔다 갔다 하면서 돈버리 했지만, 우리는 드러누어서 돈버리 할 수 잇소. 당신보다 되게 일한다고 공일 업술 줄 아오? (183면)

순사에게 훈계를 받고 일어났던 모군군은 순사가 떠나고 나자 다시 돌아와 벤치에 눕는다. 하오리는 그런 모군군을 보고 그가 게으르다는 전제로, 다시 순사와 같은 방식으로 그를 비난한다. 그러나 모군군은 그들이 더 힘든 일을 하는 만큼 공일(空日)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오

리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그저 게으르고 노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실제 모군군과 같은 이들은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일이 필요하다는 모군군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모군군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들이 바로 학생一과 학생二이다.

“일군의게 공일 되어 낫잡 자는 것이 낱불 것이 무어 잇”⁴²⁾나고 되묻는 학생二의 주장에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편견 따위는 없다. 오히려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만큼 그들이 쉴 수 있는 공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는 “공부하는 이의게 공일 돼서 담배 피우는 것이 낱불 것이 무엇잇소?”⁴³⁾라고 말하는 학생一의 주장과 이어지면서, 하오리와 굴네수염이 학생들과 대립할 때 보여주었던 인식의 문제를 옮겨진다. 하오리와 굴네수염은 학생들의 본분을 공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모군군이 “우리는 드러누어서 돈버리 할 수 잇소”라고 말 할 수 있는 것도 이와 유사한 이유 때문이다. 결국, 그들이 모군군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단지 그들만의 생각일 뿐이다. 결국 하오리와 굴네수염은 학생들과 모군군에게 비웃음을 사게 된다. 그들은 다른 이의 입장과 상황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다가 결국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순사도 하오리나 굴네수염과 별반 다르지 않다. 순사는 고모리와 모군군을 혼계하고 나서 “점잔하게 한 번 쓱 둘러보고는 서서히”⁴⁴⁾ 공원을 내려가지만 이에 맞서는 모군군의 행동은 순사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소용없는지를 보여준다.

(모군군 다시 올라온다. 사방을 둘러다 보고 순사 엮는 것을 알고는 안

42) 김우진, <정오>, 앞의 책, 183면.

43) 김우진, <정오>, 위의 책, 183면.

44) 김우진, <정오>, 위의 책, 181-2면.

심한 듯이, 예전에 누엇든 벤취 우에 다시 와서 누려고 한다.) (183면)

순사는 근엄한 척 자리를 떠났지만, 그의 위엄이라는 것은 그가 그 장소에 존재할 때만 유효한 것이다. 순사가 없음을 인지하고 다시 같은 자리에 가서 눕는 모군군은 마치 근엄한 척 일장 연설을 했던 순사를 비웃는 듯하다.

이상에서 보듯, 학생들과 모군군에 의해 하오리와 굴네수염 그리고 순사는 웃음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웃음은 김우진이 <정오>라는 작품의 제목 앞에 ‘희극(喜劇)’이라는 장르를 명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철저히 계산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웃음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우리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순사는 근대적 제도 하에서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근대적 제도는 모든 인식의 중심에 인간과 이성을 둔다는 근대적인 사고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당시 찬양 일색으로 수용되고 있던 ‘근대’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우진이 <정오>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근대적 제도 안에 내재된 부정성이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근대를 수용하는데 있어 조선 사회 내부에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에 대한 비판이 바로 하오리와 굴네수염을 통해 나타났다.

하오리와 굴네수염은 학생들과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 대립하고 있었다. 하오리와 굴네수염은 근대 수용을 통해 변화된 인식과 생활 여건을 정확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두 인물이지만, 그 입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오리 (코 뜻으로) 조선 사람이 쪼끄만한 이 담배 머근 것 아주 못써요
 학생二 왜 커다란 이는 먹고 적은 이는 못 먹는 법이 있나. 췌!
 학생一 (연기가 하오리 얼굴 압흐로 가게 확 내푸무며) 일본 사람이 봉
 메이진 조선 사람이 야반진. 하하하. (179면)

하오리의 말에 학생一은 ‘일본 사람은 문명인이고 조선 사람은 야만인’이라며 비꼰다. 서구로부터 근대를 받아들여 문명인이 되었다는 일본인이지만, 극중 인물인 하오리를 통해 본다면 일본인들은 정확하게 근대 문명을 소화한 이들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 조선의 굴네수염과 같이 구시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오리로 대표되는 일본인들의 ‘근대’라는 것은 그들의 구시대적 시각에 의해 어느 정도 왜곡된 것이다. 처음 담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굴네수염은 학생들에게 담배를 파는 전매국(專賣局)이나 점방(店房)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내 하오리의 주장을 따라 학생들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소위 문명인이라는 하오리의 말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만다. 결국 그는 다른 외부 세력을 추종하기만 하며, 구시대적인 시각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기만 하는 문제적 조선인을 대표하는 셈이다.

5. 나오며

이제까지 김우진의 <정오>를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근대의 산물인 공일(空日)과 공원(公園)이 오용되고 있는 양상을 살피고, 이러한 과정에서 희극이라는 양식을 통해 김우진이 비판하고 있는 대상과 그 대상의 면면을 살펴보았다.

갑오경장을 전후로 태양력과 요일 개념이 도입되면서 공일(空日)은 휴

식을 취하는 날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다. 또한 해외사절단이나 유학생들에 의해 인식되기 시작한 공원(公園)은 1897년 서울에 파고다 공원이 생기면서 휴식의 공간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근대의 산물로서 도입된 공일(空日)과 공원(公園)은, 김우진의 <정오>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같은 구시대적 인습의 부정성과, 순사와 같은 통제 주체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근대의 이면에 숨겨진 부정성에 의해 오용(誤用)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나아가 김우진은 이러한 오용의 주축인 하오리나 굴네수염, 순사 등을 희극화함으로써 조선 안에 퍼지고 있는 근대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문명인으로 인식되지만 정작 정확하게 근대를 수용하지 못한 일본인으로서의 하오리와 그런 일본인들에게 휩쓸려 그들을 추종하는 굴네수염, 그리고 근대가 가진 이면의 부정성을 보여주는 순사는 우리가 근대를 바라보면서 갖추어야 할 비판적 시각에 출발점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창작연대도 알려지지 않은, 짧은 습작에 가까운 작품 <정오>에는 다양한 상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마치 김우진이 그 상황들을 통해 더 큰 이야기를 하고자 처음 기본 골격 정도를 구성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그래서일까 짧지만 그 하나하나의 상황들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가 필요한 작품이 또한 <정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김우진은 단지 우리에게 다섯 편의 희곡만을 남겼다. 그러므로 그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김우진은 전통적인 삶과 근대적인 삶을 함께 체험한 인물이며, 그것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작가이다. 봉건주의와 가족제도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하나의 사상에 추수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다양한 사상들을 통해 변화하던 당시를 살피고 있었던 그다. 그렇기 때문에, 김우진의 고민이 근대 혹은 식민과 탈식민에 대한 논의들과 더욱 잘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서연호·홍창수, 『김우진 전집』 I·II, 연극과 인간, 2000.

2. 단행본

강신용·장윤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대왕사, 2004.

부산박물관,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 4』, 민속원, 2009.

서연호, 『김우진』,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윤진현, 『조선 시민극의 구상과 탈계몽의 미학』, 창비, 2010.

이두현, 『한국신극사연사』, 학연사, 1990(초판 1966).

이은경, 『수산 김우진 연구』, 월인, 200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현대극작가론① 김우진』, 태학사, 1996.

양리 베르그송, 김진성 옮김, 『웃음』, 종로서적, 1983.

Bill Ashcroft,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회론』, 민음사, 1989.

3. 연구논문

김미라, 「김우진 희곡연구-자연주의극에서 표현주의극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91.

김성희, 「김우진·유치진 희곡의 기호학적 연구-「난파」, 「산돼지」, 「토막」, 「소」를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1.

김재석, 「김우진의 표현주의극 창작 동인과 그 의미」, 『어문론총』 49호, 2008.

양근애, 「김우진의 <난파>에 나타난 예술 활용과 그 의미」, 『국제어문』 43집, 2008.

윤진현, 「김우진 희곡 <정오>의 창작 연대」, 『한국극예술연구』 18집, 2003.

정갑준, 「<파사>, <난파>, <산돼지> 속에 나타난 표현주의 기법연구」, 『시학과 언어학』 187호, 시학과언어학회, 2009.

조현범, 「한말 태양력과 요일주기의 도입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17집, 한국

종교학회, 1999.

주현식, 「폭발의 드라마, 폭발하는 무대」, 『한국극예술연구』 29집, 2009.

홍창수, 「김우진 연구-隨想을 포함한 문학평론과 희곡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1.

4. 인터넷 사이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db.history.go.kr/url.jsp?ID=gj_003_1895_05y_10_0050 accessed 2010.11.06)

Abstract

A Study on Postcolonial Aspect of Kim WooJin's *Jeong-oh*

Lee Seunghyun

Kim WooJin's *Jeong-ob* has a postcolonial aspect. He used public holiday and public park as *Jeong-ob*'s backgrounds. Although, they were come in Kora as modern products, they were misused. He realized and told it as writing *Jeong-ob*. He pointed out outmoded traditions by Ha-oh-ri 하오리 and Kul-re-su-yeom 굴레수염. Furthermore, He indicated modren system's weakness by police 순사. He disclosed modern in itself and acception problems of modern by them.

However, it is not simple. He did not tell us modern related problems, all the more, he expressed his postcolonial realization by using comedy. At that time, everybody believed that all of problems can be solved by modern in Korea. However, it was not truth. Modern had demerits in itself and outmoded traditions remained in Korea.

Jeong-ob is very short, so it has understood as a study. However, we can catch on Kim WooJin's realization of society, so *Jeong-ob* is a very important work of Kim WooJin.

Key words : Kim WooJin, *Jeong-ob*, Modern, Postcolonial, Comedy

접 수 일 : 2011년 3월 1일
심사기간 : 2011년 3월 7일~3월 19일
게재결정 : 2011년 3월 19일